

MISSION

뮤지컬 미션

공연장 대덕문화전당 드림홀
공연기간 2016.09.29(목) - 10.01(토)
공연시간 7시 30분(목) / 3시, 7시 30분(금,토)

예매문의 053-421-8291

제작 직연출 김지환 조연출 김진아 음악감독 이수현 음악감독 김대성 음악감독 김대성 (디자인 ASH) (무대미술) 황민석 (무대음악) 김지환
출연 강정민 박관식 신동욱 최석식 서은우 문혁 신재원 손우준 권병지 최남우 이대원 윤대우 유승민 김재영 지태형 김지호

주최 (사)대구광역시문화재단
주관 대구광역시
제작 호림연예문화재단
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문화재단

culture



중독자 치료재활 뮤지컬 '미션' ... 희망 · 용기 · 감동 더해간다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획된 뮤지컬 '미션' 이 10월 1일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다음페이지에 계속

공연장소 | 대덕문화전당 드림홀

공연기간 | 2016. 09. 29(목) - 10. 01(금,토)

공연시간 | 7시 30분(목) / 3시, 7시 30분(금,토)

주 최 | (재)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주 관 | 대구광역시

제 작 | 흐름엔터테인먼트

후 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약사회

대구지부, 2016년 뮤지컬 '미션' 성황리 개최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위해 기획, 실제 회복자 출연해 인기

“잘나가는 드라마 PD였지만 스캔들에 연루되어 좌천된 신아랑PD는 회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자 미션홈에 온다. 다양한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미션홈에서 회복자들을 취재하며 중독 문제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왜 자신이 이런 곤경에 처했는지 알게 된다. 한편 이혼 위기에 놓인 마약중독자 김우주는 이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약을 끊으려 하지만, 결국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특정 계층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 곳곳에 숨어 있으며, 이와 같은 중독자의 실제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재활을 위한 뮤지컬 '미션'을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대구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유관기관 및 시

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약사회, 대호약품이 후원했다. 뮤지컬 '미션'은 대구지부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첫 공연 이후 현실적인 약물중독문제를 다루며 실제 회

복자가 배우로 출연하는 유일한 뮤지컬로서 매년 공연되며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도 극중 김우주의 실존인물이 출연해 더욱 화제가 됐다. '미션'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중독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회복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공연 첫날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지방검찰청 이진호 부장검사 격려사와 축사가 있었으며, 윤재옥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청, 경찰서,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여러 유관기관장과 중·고등학교 학생과 약학 대학생을 초청해 함께 관람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은 “전국 12개 지부가 있는데 대구지부의 뮤지컬 '미션'처럼 마약류 회복자를 위한 특화된 사업을 모든 지부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을 것”이라며 “중앙본부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에 사는 해외교포까지 마약류 중독



뮤지컬 미션팀이 2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과 이재규 대구지부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해외지부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문제는 특정 계층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약물 오·남용 및 중독문제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중독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회복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는 창립 이래 마약류 예방사업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분위기 속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다. 그동안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 미션 뮤지컬을 비롯해 건강한 사회복귀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약

물남용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약학 대학생 워크숍 등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부모 교사 예방교육, 포래리더 만들기 프로그램, 예방교육 교수요원 전문가 과정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치소, 교도소 재활교육 프로그램, 햇살교실, 단약을 위한 라파교정 교실, 중독재활센터 등 치료재활·개발 및 연구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14년 3월에 개소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중독재활센터에서는 기소 유예교육 대상자, 자발적 단약 희망자들에게 단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재활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약물 중독자들이 과거의 생활방식을 수정해 나가도록 사회복귀 재활을 돕고 있다.

